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 학술적 가치 높다

봉화유적 추가 시·발굴조사 완료
문화재 보존·관리 작업 착수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봉화유적이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높아 도문화재 지정 신청 등 무주군이 관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봉화유적에 대한 추가 시·발굴조사가 완료되면서 지난 8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무주읍 당산리 소재 해발 429.6m 산봉능선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는 당산리 봉화유적은 지난 해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산 정상부 능선을 따라 3기의 봉화대(봉화시설)와 봉화주변의 방호석축 추정 집수시설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5월 시굴조사 결과, 조사된 2호 봉화는 정방형에 가까운 석축단과 보축단이 계단식으로 조성돼 있었으며, 유적의 성격 규명 및 보존, 정비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학술자문회의의 결과를 근거로 추가 시·발굴조사를 나섰다.

현장을 방문한 자문위원들은 당산리 봉화유적은 봉화대 3기와 집수시설 방호석축 등을 갖춘 관방유적으로서 그 형태와 구조 등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독특한 요소가 확인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1,2호 봉화의 기초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어 축조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됐으며 3호 봉화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유적의 성격 및 구조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봉화유적

출토된 유물은 삼국~후백제시기 토기편들로 최근 활발히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동부 산간지역 봉화유적들과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이번에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된 2호 봉화의 경우 자연압반을 굴착하고 석재를 덧대어 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굴조사 당시 정방형 형태로 추정하였으나 발굴조사 결과 연미형(燕尾形·제비꼬리모양) 돌출부를 갖춘 유사한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양끝 단에 돌출된 석축을 덧대어 방호석축과 연결 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봉화로 이용되다가 성벽과 망대 등을 갖춘 보루 등의 기능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당시 접거하던 세력에 의해 유적의

기능이 변형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학술자문회의에서 거론됐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보존대책을 위해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시 거론됐다.

임정희 문화재팀장은 "당산리 봉화유적의 조사성과를 통해 학술적 가치와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필요한 발굴조사와 더불어 문헌검토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과 타 지역 봉화유적과의 비교 등 당산리 봉화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재검립할 수 있는 학술대회 개최와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뉴미디어아트 창작 문화공간 탄생

전북문화관광재단·정읍시, 전북아트플랫폼 22일 개소식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과 정읍시가 함께 구축한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낙서창고井(정)'(이하 전북아트플랫폼)이 오는 2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아트플랫폼은 도내 14개 시군의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시군 간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정읍시에 소재한 농협양곡창고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뉴미디어아트 중심의 창작공간으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작품활동과 전시 공간으로 최적화돼 있다. 특히 전 공간을 가변형으로 만들어 개소 이후 다양한 기획전시가 물론 지역작가들의 기성 작품을 미디어화할 수 있는 작품전시 기회까지 제공된다.

특히 기존 미디어 아티스트들에게는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기성예술인들과 미디어아트에 진입하고자 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단계별 미디어아트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의 결과물은 전시공간을 활용해 전시되며, 향후 미디어아티스트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아트플랫폼의 또 다른 이름인 '낙서창고井'은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재생사업으로, 창고라는 정체성과 뉴미디어아트로 기존 예술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의미와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낙서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번 개소식은 이러한 공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한 교육생들의 작품전시가 진행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새로운 장르로의 도전을 원하는 기성예술인, 기존 뉴미디어아티스트들의 창작과 전북도민들의 문화향유가 함께하는 문화공간이 탄생했다"며 "도내 작가들의 창작지원은 물론 기획전시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작품들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북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173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라북도 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도와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예술인 3,831명에게 30억 6천만 원 가량을 지원했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2022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수령한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9일까지 신청 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jb_7443@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장은성기자

한국음식 저장 故 유계완 선생 재조명

한국전통문화전당, 22일 전주음식 문화 인물 재조명 연구 발표 행사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2일 전당 2층 공연장에서 전주음식의 뿌리를 찾고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전주음식 문화 인물 재조명 연구 발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故 유계완 선생의 삶을 고찰해 재조명하는 2개의 연구 주제 발표와 전시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연구 발표에서는 전당 한식창의센터 소속 송영애 한식문화진흥팀장이 '한국음식에 전주음식을 녹여낸 선구자, 유계완'을 제1주제로, 유계완 선생의 차남인 이상진 전 숭실대 교수가 '음식과 어머니의 삶'을 제2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날 각각의 주제 발표를 통해 유계완 선생의 연구 업적을 객관적 시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들려주는 어머니의 삶을 통

해 유계완 선생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와 함께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한식 창의센터에서 재현한 유계완 선생 집안의 내림음식 10종에 대한 영상, 살아생전 선생의 업적이 담긴 연구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유계완 선생은 196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청와대에서 국민 민천을 위한 메뉴를 구성하고, 음식 조리를 전담해왔다. 국민으로는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1966년 존슨 대통령, 1967년 독일 루브케 대통령, 1974년 포드 대통령 등이 있다. 특히 1974년 포드 대통령 방한 때는 환반 외에 비빔밥을 내놓는 등 전주음식에 대한 사랑도 엿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친환경 추천여행지' 선정지 홍보 위한 SNS 퀴즈 이벤트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2일까지 '친환경 추천 여행지'에 선정된 2곳에 대한 홍보를 위해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 친환경 여행지 발굴 사업을 통해 장수 뜰샘생태공원과, 군산 금강미래역사관을 한국관광공사 '친환경 추천 여행지' 발굴 사업에 추천한 결과 두 곳 모두 선정됐다.

이에 재단에서는 선정지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재단 공식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이벤트 게시글을 확인하고, 정답 제출 후 참여완료 댓글을 남겨주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37명에게 배달의민족 기프티콘 5만원, 3만원, 커피기프티콘 1만 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3일 재단 SNS를 통해 공개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 관광벤처 성과발표회·네트워킹 행사 성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전북관광벤처지원센터는 2022년 전북 관광벤처 성과발표회 및 네트워킹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 전북관광벤처지원센터 지원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기업 간 소통 및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내 15개 관광벤처기업과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발표회를 진행한 7개 관광벤처기업은 전주 원도심 테마투어 운영, 한옥 워케이션 예약 패키지 제작, 제페토를 활용한 전주 한옥마을 여



행 등 테마 골목투어, 워케이션, 메타버스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성과물을 선보였다. 발표 후에는 현장에 참여한 도내 관광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